

•배포일시: 2025.05.28. 배포즉시  
•전화: 권지웅 위원장(010-5255-6422)  
•이메일: goom22@naver.com  
•쪽수: 총 2 쪽

##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 251명,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 이재명 후보만이 만들 수 있습니다”

28일, 251명의 전세사기 피해자 및 시민들이 ‘전세사기 걱정 없는 사회’를 요구하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 대한 지지를 공식 선언했다. 이 가운데 91명은 전세사기 피해 직접 당사자로서 이번 지지선언에 참여했다.

피해자들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해 실질적인 행동에 나선 정치인은 이재명 후보뿐이었다”며 이재명 후보의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그간 행보들을 언급했다. 이재명 후보는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네 차례 직접 면담(23.2.7. 서울 강서/ 23.04.24 서울/ 23.12.13. 부산 /24.02.26. 인천)하고, ▲피해 현장을 직접 방문(24.02.26. 인천미추홀구 /23.12.13. 부산수영구)했으며, ▲전세사기 특별법 제·개정을 위해 30회 이상 국회와 언론에서 공식 발언을 이어왔다.

서울 동작구에서 피해를 입은 한 피해자는 “수많은 정치인이 이 문제에 관심 있는 척만 했지만, 실제로 법을 만들고 현장을 찾은 사람은 이재명 후보뿐이었다”며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의 지지를 보낸다”고 전했다.

지지선언 현장에서는 전세사기 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제안도 이어졌다. 지지선언에 참여한 서울 동작구 거주 전세사기 피해자는 전세사기 문제가 정부의 주거 정책설계 실패로 인한 구조적 문제라며 정부의 ▲전세사기 피해주

택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 제도 도입,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및 전세 제도 개선 위원회 설치를 요구했다.

지지 선언 자리에 참석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전세사기 문제 해결에 강력한 의지를 전했다. 진 의장은 “기존 대책의 한계를 파악하고 있고, 전면적인 대책을 강구하려고 하고 있다 “며 ” 민주당이 집권한다면 피해자분들이 ‘속이 후련다’ 싶을 정도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지지 선언 직후 권지웅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청년주거희망위원장은 “피해자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세사기 문제는 끝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진행 중”이라며 “긴급하게 해결해야 할 문제를 포함해서 사각지대 없는 피해구제, 전세사기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지난 26일부터 매일 “보증금 지키는 대통령이 필요합니다” 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전세사기피해자가 밀집된 대구, 서울등지에서 사전투표 독려캠페인을 이어가고 있다. 끝.

별첨 현장사진



